

레위를 부르시다 (마가복음 2:13-17)

(개역개정)

¹³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¹⁴ 또 지나가시다가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¹⁵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 이러라 ¹⁶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¹⁷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새번역)

¹³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무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아오니,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 ¹⁴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¹⁵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 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¹⁶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¹⁷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13절

“다시 바닷가”



공간적 배경: 갈릴리 바닷가

“무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아오니”

소문을 내지 말라는 예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한 인지도와 인기는 점점 상승 → 사람들이 예수에게 몰림

“가르치셨다”

가르침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아마도 하나님의 복음(1:14-15)일 것이다.

그들은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비난



정결예법 위반

(바리새파 사람들은 소위 “죄인들”을 경멸하고 정죄함.

그래서 그들은 배척하고, 공동체로부터 격리, 소외시킴)

비난의 내용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 내포된 의미: 저 사람 역시 죄인이나 다름없다!

17절

그들의 비난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 예수님의 행동은 정결예법보다 사랑의 실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위 제의적으로 부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율법을 엄격하게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배격하거나 타자화 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식탁교제를 나눈다.

(식탁교제를 한다는 것은, 그들을 외부인이 아니라 내부인으로 대한다는 의미)

소위 “죄인”인 세리를 제자로 부르는 것도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